

■광주시장 후보에 듣는다 민노당 장원섭

“광주 비전은 시민 참여형 도시공동체”

-후보가 제시하는 광주의 비전은 무엇인가? 10년 후의 광주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광주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광주'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 독점 정치, 콘크리트 경제는 더 이상 광주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돈 보다는 사람, 개발보다는 복지, 경쟁보다 협동, 차별보다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시하는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광주의 비전은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돼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공동체'로 탈바꿈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 광주의 새로운 대안과 동력은 시민들 스스로 광주를 디자인하는, 창조와 과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30년 전 5·18 정신을 상기해보자. 총칼에 맞선 저항 정신과 주먹밥, 현혈로 표현되는 시민 자치와 공동체였다. 5·18이아말로 광주의 '오래된 미래'다. '시민참여형 도시공동체'야말로 오월정신을 원형으로 한 21세기 광주의 비전이라고 본다. 이런 정신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한다면 지속 가능한 광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일자리·복지·교육·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 아낌없이 투자한다면 10년 뒤 광주는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시민참여형 도시공동체'가 돼 있을 것이다.



장원섭은 누구

노동운동과 진보 정치운동을 주로 해왔다. 노동현장을 누비고 진보정당 건설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 시절 국회의원 10명의 원내진출과 광주 지방의원 8명을 배출하면서 당내에서 지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작년에는 5·18 도청 원형 보존 상황실장을 맡으며, 각계 인사들 설득해 지역의 최대 현안을 풀어나가기도 했다.

■장원섭 신상 메모

Table with personal information of Jang Won-seop including birth, height, weight, education, and political background.

무상교육 중점적 추진

복지혁명 선도하겠다

땀흘리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정치 도전할 것

릴 각으로 받았없이 열심히 뛰고 있다.

-민주당이 광주시와 시의회, 기초의회 등을 점령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광주시의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특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민주당 15년 독점구조는 부패비리의 종합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총체적인 폐해를 보여주었다. 일당독점의 폐해는 '시민 무시, 부패비리, 예산 낭비'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19명의 시의원 중 6명이 부정부패로 출몰이 사회

했다. 또한, 하계U대회, 돛구장, 시청 앞 미관광장 등 시민의 뜻이 아니라 시장의 뜻대로 추진한 정책도 많았다. 특히 광주시의회가 지난 4년간 지자체 조례안의 완안을 가결한 비율은 85.58%로 전국 3위에 오른다. 이는 지자체를 견제하기보다는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광주시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은 바로 '특별교부금'이라고 본다. 특별교부금은 일당 독점 구조에서 업무추진비보다 더한 쌈짓돈으로 쓰였다. 모두가 같은 당 소속인 탓에 시장은 특별교부금으로 구청장·시위원을 관리하고, 시위원은 구의원을 관리하며 '줄 세우기 정치, 일당 독점구조'를 더욱 강화했다고 본다.

-후보가 광주시장에 적합한 이유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정치에 도전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낡은 것을 깨고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꾼이 아니다.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하는 정치인 1명쯤은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의 정신인 시민참여형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적임이다. 광주를 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광주, 자립경제시스템이 구축된 광주, 좋은 일자리가 많은 광주, 복지와 교육·문화수준이 높은 광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름 함께” 연평해전 유가족 조문

28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에 마련된 천안함 46용사 합동분향소에 연평해전 (故) 운영하 소령 유가족등 연평해전 유가족들이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조직·軍 운영시스템 재정비”

靑 천안함 침몰사고 계기

청와대가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안보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같은 안보비상 상황에서 청와대가 관련부처의 의견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해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보비상 대비 시스템 정비와 관련,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전체적인 조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위기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

고 그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기존 청와대 조직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을 할 때 빨리하기보다는 정확히 하는 스타일 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러나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경우 조직이 비대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데다 ‘육상육’ 조직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부활하는 것은 필요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국가위상향위의 확대개편, 대통령 안보특별신설, 외교안보수석실과는 별도의 안보조직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軍 “과거 아군 기뢰 폭발 가능성 없어”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과거 우리 군이 백령도 해역에 설치한 기뢰는 기술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70년대 우리 군이 백령도 해역에 설치한 기뢰의 폭발 가능성 여부를 민간 폭발물 전문업체

에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군은 1970년대 북한의 서해 상륙작전에 대비해 백령도 앞바다에 폭뢰를 개량해 육상에서 버튼을 누르면 폭발하는 기뢰를 설치했고, 이후 제거작업을 거쳤지만 일부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원 대변인은 “당시 기뢰를 설치한 백령도 해역 해도를 확인한 결과 천안함이 침몰한 지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파괴수거 작업과 관련, 원 대변인은 “현재 천안함의 폭발한 원인은 미세한 잔해물까지 수거작업을 진행 중이고 주변 탐색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함수 침몰지역은 폭발원점에서 한참을 떠내려간 곳이기 때문에 어선이 그물로 바닥을 긁어 잔해물을 인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the 6.2 election (6.2 선거)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im Young-pil's campaign team.

Large advertisement for Kim Young-pil's university entrance exam preparation course, featuring the text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and 'www.kimyoung.co.kr'.